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1. Vol 250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무술년 새해 아침

무술년 새해 첫날 아침
힘차게 솟구치는 붉은 태양
고요한 어제의 하늘을
찬란한 희망으로 흔든다.

기억의 가지에 걸어 두었던
켜켜이 덧칠된 아집 덩이
편견의 허물 벗는 장엄한 순간
낮선 존재와 교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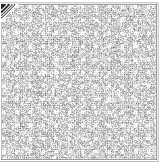
하늘과 대지가 맞닿은 공간
내일을 동행하는 시간의 경계
진실한 소망 서로서로 품고
믿음과 소통으로 공존한다.

벽찬 기쁨 출렁이는 하늘
붉은 미소 잉태하는 대지
상생의 손잡은 무술년 첫날
둥글둥글 새 세상 깨운다.



심 억 수

- 문예한국 등단
- 시집 「물 한 잔의 아침」
- 수필집 「억수로 좋은 날」, 「여물지 않은 곡식은 버려진다」
- 청주문학상, 충북우수예술인상 수상
- 청주문인협회장, 중부문학회장, 충북시사랑회장 역임
- 현)충북시인협회장, 청주예총수석부회장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8. 1. Vol 250

Contents



도담삼봉 일출

단양팔경의 하나로, 3개의 기암으로 이루어진 섬을 말한다. 푸른 강물 가운데 우뚝 선 기암괴석이 모두 남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데, 가운데 봉우리가 가장 높고, 큰 봉우리 허리쯤에 수각(水閣)이 있어 절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망루 구실을 한다.

사진제공 / 단양군청

- 04 | 신년사
- 05 | 충북도의회 2018년도 의정운영 방향
- 06 | 제360회 정례회 주요내용
- 08 | 충북도·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 심의
- 10 |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
- 11 |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문
- 12 | 충북도·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분석 토론회
- 13 | 충주관광활성화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14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 15 |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 22 | 제360회 정례회 주요 처리의안
- 24 | 5분 자유발언
- 28 | 의정활동 이모저모
- 30 | 의정논단

- 발 행 일 : 2018년 1월
- 발 행 인 :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 발 행 처 : 충청북도의회
- 구독신청 :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 (043) 220-5123
- F A X : (043) 220-5119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buk.kr>



하루를 한달처럼! 한달을 일년처럼!

더 많이, 더 빨리 뛰겠습니다



김양희 의장

존경하는 163만 도민 여러분!

2018년 위대한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 모두 가슴에 품은 소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늘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해였습니다. 하늘은 잔인했고,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하지만 가시밭길 같았던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구어 내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기치(旗幟)로 닳을 올린 제10대 도의회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듯, 의사당에 첫 발을 내딛던 초심으로 돌아가 저희 서른 명 의원 모두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빨리 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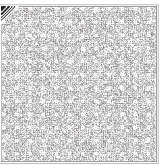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순간 찾아내고 실천하며 하루를 한달처럼, 한달을 일 년처럼 농축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10대 도의회가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술년 새해 아침

충청북도의회 의장 **김양희** 드림



충청북도의회 2018년도 의정운영 방향

충북도의회는 2018년도 의회 운영계획의 기반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는 초당적 협치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3년 6개월 동안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를 위해 그려온 밑그림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어낼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는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의 구현과 163만 도민을 위해 집행부에서 계획한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와 예산은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감시·견제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해 집행부에 전달하는 기본적 일상에 충실해 나갈 방침이다.

이런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키워드로 도의회는 우선 도민중심·민생중심의 의회를 위해 현장을 보고 현장에

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도민들의 긍정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까지 귀기울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탁상의 정을 탈피해 의원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직접 찾아가 민생 현장을 살피는 현장의정을 강화하여 주민을 대변하는 참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도의회는 또 당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충북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탬 것이며, 충북이 대한민국 역사를 당당히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도 천명했다.

대화와 타협, 소통, 이해라는 합리적인 민주주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내년 7월에 새로이 시작되는 제11대 충청북도의회가 성숙한 의회 문화의 기반 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이다.

[2018년도 연간 운영계획]

월 별	회 기	주요예상안건	비 고
1월 임시회 (제361회)	1.17.(수)~1.31.(수) (15일간)	□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안전심의	- 신정(1.1)
3월~4월 임시회 (제362회)	3.22.(목)~4.5.(목) (15일간) 누계 30일	□ 2017회계 결산감사위원 선임 □ 안전심의	- 3·1절(3.1) - BIO KOREA
6월 임시회 (제363회)	6.15.(금)~6.27.(수) (13일간) 누계 43일	□ 안전심의	- 현충일(6.6.) - 지방선거(6.13.)
7월 임시회 (제364회)	7. 5.(목)~7.6.(금) (2일간) 누계 45일	□ 11대 의회 원구성 · 1차 본회의 : 7.5. 의장·부의장 선거 · 2차 본회의 : 7.6. 위원·상임위원장 선임	
7월 임시회 (제365회)	7. 11.(수)~7.20.(금) (10일간) 누계 55일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안전 심의	
9월 정례회 (제366회)	9.5.(수)~9.19.(수) (15일간) 누계 70일	□ 201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 안전 심의	-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 소방환경기대회스티벌
10월임시회 (제367회)	10.10.(수)~10.24.(수) (15일간) 누계 85일	□ 2018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 안전심의	- 개천절(10.3.) - 한글날(10.9.)
11월~12월 정례회 (제368회)	11.8.(수)~12.21.(금) (44일) 누계 129일	□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 2019년도 예산안(도, 교육청) □ 2018년도 추경예산안(도, 교육청)	- 대입수능일(11. 15.) - 성탄절(12.25.)
누 계 : 8회/129일(임시회 6회, 70일 / 정례회 2회, 59일) · 상반기 : 3회/ 43일(임시회 3회, 43일) · 하반기 : 5회/ 86일(임시회 3회, 27일 / 정례회 2회, 59일)			

※ 7월 이후 일정은 제11대 의회 출범 후 협의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일간 제360회 정례회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며 201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제360회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추경 및 2018년도 예산 의결

건의문 채택·토론회 등 실시... 대안제시 통한 현안해결 집중

충북도의회는 2017년 11월 8일부터 12월 22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충청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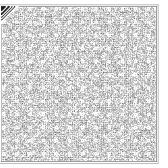
도의회는 또,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문'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이송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예산안 분석 토론회'와 '충주관광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정책과 목표가 제대로 시행·달성 되었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세밀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8일 실시한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지사와 충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박우양 의원과 윤홍창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지원 시급과 제천 세명대학교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주제로 조속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



일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이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임희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안건과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촉구 건의안」,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의결한데 이어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이어, 황규철·연철흠·김인수·임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옥천 도의원 제2선거구 존치방

안 마련’, ‘해외교류 방법의 획기적 전환’, ‘속리산 범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방안 마련’, ‘기상이변에 따른 대응 선제적으로 준비하자’ 등을 주제로 각각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실시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4조1789억 116만4000원과 충북도교육청 예산안 2조5314억9394만6000원을 의결하고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생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박우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안건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순묵 의원이 ‘도민을 위한 도청(도청이전 등)이 되어야 한다’, 윤은희 의원이 ‘충청북도 모유수유율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정영수 의원이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하라’, 이종욱 의원이 ‘김병우 충북교육감 사과하라’, 김학철 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과도한 복지 정책을 지양해야’, 임병운 의원이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를 주제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

개회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 22일 실시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헌법 상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가책무를 명백히 규정토록 촉구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했다.

또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연철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의원발의 안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충청북도의회는 총 8회에 걸쳐 129일의 회기 일정을 소화하며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충청북도 새해 예산

충청북도 2018년도 예산 4조1810억원 확정

도정학술 용역비 등 24개 사업 29억원 삭감

충청북도의회는 2017년 12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지난해보다 3134억원이 증액된 4조181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 증가한 3조71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7% 증액된 4658억원으로 편성했다.

도의회는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7681억원으로 전년대비 8.2%인 683억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지역개발기금 538억원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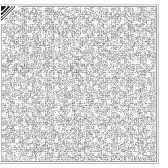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진행된 예산종합심사에서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도정학술

용역비, 세계무예마스터십 위원회 지원, 사회경제 창업 아카데미 운영, 영문소식지 발간 등 예산에서 총 22건에 26억7279만원을 삭감하고 이중 국비 9억원을 제외한 17억7279만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2018충북소방산업엑스포 개최와 충북소방산업엑스포 해외 바이어 초청여비 3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3125억원이 증액된 4조1810억원으로 확정하고, 일반회계는 2672억원이 증가한 3조7152억원을,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가 전년대비 452억원이 증액된 4658억원으로 의결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 7681억원을 승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내역을 존중하며 예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부실한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는 사업에 대한 확대 해석 자제와 법적 안정성을 토대로 계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계획성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구상 단계부터 사업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각종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형평성있는 지원을 촉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도내 소외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과 투자확대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기금심사 시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으로 재원증대를 통한 안정적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충청북도 재정운용의 경상경비 최소화과 투자재원 극대화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했다.

〈충청북도 2018년도 새해 예산〉

(단위 : 억 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 (내부유보금)	감	
총 계	41,819	20	29	41,810
일반회계	37,161	17	26	37,152
특별회계	4,658	3	3	4,658

충청북도교육청 새해 예산

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 2조5305억원 확정

혁신학교지원비 등 21개 사업 27억원 삭감

충북도의회는 충청북도교육청의 2018년도 새해예산을 2조5305억원으로 확정했다.

도의회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2.1%인 2732억원이 증액된 2조5332억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출예산안 중 혁신학교지원비 등 총 21개 사업에 27억1236만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주요 삭감내역은 교육허브 충북브랜드화 교육시책 홍보비 1억1880만원,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비 2억6606만원, 혁신학교지원 9억6500만원, 학생참여예산 1억5000만원, 충북환경교육체험센터 건립비 7억8881만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적정성 여부를 따져 꼼꼼히 처리했다는 평가다.

도의회는 4년차를 맞는 혁신학교지원 사업이 예산만 받아 챙기고 사업에 빠지는 ‘먹튀 논란’과 선심성 예

산 집행, 일반학교 보다 기초학력 저하 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혁신학교사업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도민이 부담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소외된 지역 학교에 더욱 더 세심한 배려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균형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충청북도교육청 2018년도 새해 예산〉

(단위 : 억 원)

회 계 별	제출예산액	계수조정결과		확정예산액
		증 (내부유보금)	감	
교육비특별회계	25,332	27	27	25,305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국민 행복 증진 출발점」

대한민국헌법 명시 등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마련 요구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로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및 위원, 청와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발송했다.

이번 건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은 30년 만에 대한민국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가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농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

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우리의 농업과 농업인들을 보호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국가의 책무를 관련 법령에 규정할 것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

30년 만에 「대한민국헌법」의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좌우할 새로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책무가 반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수자원 확보와 홍수방지, 전통문화 계승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식품안전,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국가의 역할 없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육성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과 역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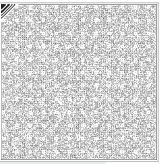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가 농업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그 중요성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관련 법령에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항공수요 대응 절실」

사드문제 해결로 한·중 갈등해소 따른 대응책 마련 필요

충북도의회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29일 충청권 인구증가와 세종시 정착으로 이용인원이 날로 확대되는 청주국제공항을 더욱 활성화하여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청주국제공항은 2015년 대비 2016년 국내선 여객수가 31.5%나 늘었고 국제선 여객수도 21% 증가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이 올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그동안 국제노선 확대를 비롯한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공항 경제권 육성은 청주국제공항의 중부권 거점 공항 육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앞으로의 중부권 인구유입 증가와 사드배치문제로 경색되었던 한·중관계가 해소되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며, 국가균형발전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에어로 K의 국제항공운수사업 면허를 허가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문

중부 내륙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그동안 적자를 면치 못했으나 지속적인 여객 증가에 힘입어 개항 19년 만인 지난 2016년에 첫 흑자를 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주국제공항과 대구공항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그동안 국제노선 확대 등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과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점 항공사까지 설립되면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인구는 타지역 인구 유입, 세종시 정착,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640만명 규모의 거대도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항공 관계자나 충청권 주민들은 늘어나는 항공수

요에 맞게 청주국제공항도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행정수도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 항공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 유입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드배치문제로 경색된 한중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에서 조속히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설립 면허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충청북도·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충북도의회, 도민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편성 모색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충청북도·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충북도의회(의장 김양희)는 지난해 11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민간단체, 학계, 주민참여예산위원, 도의회 의정모니터, 충청북도·도교육청 예산관련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충청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전국 광역도의회로는 사상 최초로 개최된 것으로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병진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충청북도 박재국 예산담당관과 도교육청 김덕환 기획총괄서기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현황보고와 함께 손희춘 청주대 교수와 김민희 대구대 교수가 각각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분석과 과제'를 중심으로, 박홍주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이 '성인지 예산의 실태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윤홍창 도의원, 윤창훈 충청대 교수, 강창구 전(前) 상지영서대 교수, 오경숙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장, 김건태 대한건설협회 충북

도회 실장,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연구기획실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에서 윤홍창 도의원은 "충북도의 예산규모가 9개 광역도 중 최하위에 속하는 상황이므로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북행복 결혼공제 사업은 중앙정부와 행정협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훈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북의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힌 뒤 운영비 절감 등 사업단위로 효율성 검토와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창구 교수는 "다양한 축제보다 충북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축제를 개발·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양질의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와 능력개발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오경숙 본부장은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청년·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청년·여성의 단계적 취업지원 등 정부의 정책흐름과 도민의식 변화에 따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건태 실장은 "내년도 정부의 SOC사업예산 감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내진성능보강 등 도민의 재난안전 및 건설분야에 대한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하 연구기획실장은 "세입예산 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 등에 의한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정책적 환류를 통해 현안사업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박병진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향후과제 등을 분석해 향후 도의회 예산 심사 시에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충주 박물관을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 만들어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충주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행정문화위원회는 11월 2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충주관광활성화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는 11월 2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충주관광활성화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혜의 관광 요건을 갖춘 충주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언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충주관광 활성화 전략 모색(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기 충주시 문화재자문위원, 김영식 충북산악연맹 회장, 김상석 우리한글박물관 관장, 이계련충원문화재단 이사, 윤병화 세경대학교 교수, 박일선충북환경연대 대표, 박중근 충청북도 관광항공과장, 박종인 충주시 관광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삼철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충북과 충주 관광의 현실을 진단하고 관광수용태세 개선의 필요성과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 환경, 충주관광 전략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기 자문위원은 “충주박물관을 지역 대표 박물관

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와 충주대표 책자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회장은 “선진국형 미래 아웃도어 스포츠인 무동력 수상스포츠 패들링(카약, 카누, SUP등)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충주패들센터(CPC: Chungju Paddle Center)를 설립하여 투어, 페스티벌 등의 개최를 통해 관광사업과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국내외 모험관광객과 패들링 동호인 흡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석 관장은 “2019년 중부내륙선 전철이 충주까지 이어지는 것에 착안하여 충주고미술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성역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련 이사는 “수안보를 리지엄(Resort + Museum)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예술적인 온천 리조트로 활성화 시키자”고 제안했다.

윤병화 교수는 “충주 고미술거리를 제2의 인사동거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메니티(Amenity) 개념을 접목시키고 지역예술가와 고미술거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근 관광항공과장은 “충주시는 강원, 제천, 단양 등의 유명 관광지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에 지나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문체부·충청북도 관광개발계획에 충주시가 방향을 같이 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급변하는 관광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인 관광과장은 “해당지역의 역사, 자연, 환경, 인문 등과 연계되지 않는 인위적이고 물리적인 관광개발은 가급적 지양하고 우리 지역만이 가진 특성을 발굴하여 이를 서로 연결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언구 의원은 “삼국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모인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업 사전분석·대안제시… 강도 높은 심사」

집행부에 329건 (시정·개선 87, 건의·촉구 242) 조치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충청북도 실·국 및 산하기관과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산하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주요시책 전반에 대한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철저한 사전분석과 현장 확인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진행됐다.

특히 이번 감사는 충북도의회 최초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민간위탁기관 25개 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여 실시한 결과, 시정·개선요구 87건, 건의·촉구 242건으로 지난해 보다 17건 증가한 총 32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도의회 수석전문위원 명칭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도의회 독립청사건립이 조기 추진되도록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에 다양한 노력 경주, 국제교류 추진 시 단발성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교류가 되도록 적극 노력 등 5건의 건의·촉구사항을 지적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미세먼지 발령권역을 북부·중부·남부권으로 확대·검토 추진할 것 등 시정·개선사항 10건, 사방댐 공사 추진으로 수해피해 예방에 노력할 것, 청소년 국제교류 철저 및 적극적인 홍보 등 건의·촉구사항 48건을 지적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서별 직원 사무분장표 재정비, 민간기관·단체 보조사업 정산 시 철저한 실적분석과 평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부드러운 감성에 호소하는 넋지효과 홍보 등 도정에 대한 홍보방향 개선 등 시정·개선사항 21건, 도민감사관 추가 위촉 시 실적위주로 위촉·운영,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도내 건축물에 대

■ 각 위원회별 지적사항

위 원 회 별	계	시정·개선	건의·촉구
의회운영위원회	5	0	5
정책복지위원회	58	10	48
행정문화위원회	51	21	30
산업경제위원회	80	27	53
건설소방위원회	50	6	44
교육위원회	85	23	62
계	329	87	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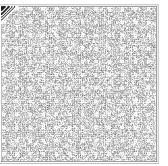
한 내진설계 등을 확인할 것 등 건의·촉구사항 30건을 지적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시·군 지역별 농산물 출하 시기가 다름을 감안해 한정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일자리사업 지침을 마련·시행할 것 등 시정·개선 요구사항 27건, 산업단지조성에 금품로비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산업경제위원회와 협의체계를 구축할 것 등 촉구·건의사항 53건을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가금~북충주IC 국지도가 미준공상태로 장기화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조치할 것 등 시정·개선 요구사항 6건, 2017년도 예산 중 이월액 과다발생에 따른 예산관리 철저이행과 자체감사 시 지적된 도비보조금 정산소홀 등 건의·촉구사항 44건을 지적했다.

교육위원회는 기간제교사의 학급 담임비율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개선, 무고성 투서나 언론보도에 의존해 왜곡된 시각과 편견에 의한 감사활동 자제 등 시정·개선 요구사항 23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 공무원 범죄 예방교육 확대 실시 등 건의·촉구사항 62건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으로 이송되며,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2018년 1월에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의회운영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2018년도 예산 심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병운)는 제360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세 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지난해 11월 9일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은 수석전문위원 명칭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도의회 독립청사 조기추진, 도의회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표준 규격 마련, 도의회 접수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지속적이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내역이 없고, 다만 학술연구용역비 2000만원 명시이월 건만 있어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29일에 열린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안 협의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먼저, 2018년도 연간회의 운영계획은 상반기 중 3차례 임시회를 개최하고 7월 이후 하반기 회의일정은 11대 의회 원구성 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6%인 2억5979만4000원이 증액된 102억4306만1000원으로, 의회사무처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갔으며, 대체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구활동지원, 노후장비 교체, 의회전문성 제고와 의회역할강화를 위한 입법 및 특위활동 지원 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12월 22일에 열린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제361회 임시회를 내년도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11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요자 중심 정책수립 당부



위원장
김영주 의원



부위원장
이양섭 의원



박우양 의원



박종규 의원



윤은희 의원



이광희 의원



11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북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24개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주)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1건,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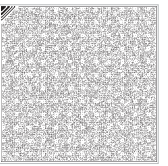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충북도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정책복지 소관 위탁기관인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 충청북도광역자활센터, 충청북도광역치매센터 등 총 24개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통한 도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23일 실시한 「2017년도 제3회 추경(수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정학술용역의 매년 반복되는 명시이월 사유, 충북도립대 운영비 부족분 발생 사유 및 대책, 일부 신규 사업이 정리추경 때 올라온 사유와 시급성, 예산심사 자료의 형식적인 작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집중 질의하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지역문제 다함께 해결해봄 공모사업의 추진방향과 충북 미래비전 2040 선포식 계상 사유, 명예연구소 연구사업비 지원 시급성, 충북도립대 통학버스 증차에 따른 예산증액과 충북연구원 운영비 증액 사유를 꼼꼼히 따져 물었다.

또,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한 당위성과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스마트 쉼 센터 설치 사업 계상 사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타임 운영 사업 기대효과,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신규장비 구입비 신규 계상 사유 등을 집중 질의하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 됐다고 판단되는 5개 사업에 17억900여만원 중 8억3000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위원회는 또,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과 박우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보충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수정 가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광옥)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연철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도민이 활발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박한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는 도내 거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교류, 미술작품 구입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위원회는 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사업들에 대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 묻고 다양한 정책제안과 함께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최광옥 위원장은 도지사 공약 중 ‘감사위원회 설치’, ‘여성분야 전담국 신설’, ‘환경전담국 설치’ 등에 대하여 현재 추진 결과물이 전혀 없음에도 “정상추진”이라고 도민에게 공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기 내 추진완료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박봉순 의원은 충북문화재단의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도 보다 2년이나 늦게 설립된 충남문화재단 인력이 충북의 2배라고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검토 및 인력충원 등 전반적인 인력운영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진흥과 소관 전임지도자 지도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급여가 작년대비 3% 증액됐다고 하나 보조지도자 기본급 150만원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도자나 보조지도자들이 어려움 없이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등에 송부하고,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기타 현안들을 심사·의결했다.



위원장
최광옥 의원



부위원장
연철흠 의원



박봉순 의원



박한범 의원



이연규 의원



11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일자리 지원사업 시·군별 효율적 배분 요구



위원장
이의영 의원



부위원장
황규철 의원



김인수 의원



엄재창 의원



임병운 의원



임희무 의원



11월 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체간담회를 실시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의영)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 등 관련기관에 이송했다.

먼저,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경제통상국 등 집행기관으로부터 350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통상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군 지역별 농산물 출하 시기가 제각각임을 강조하고 한정된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연중 지속 지원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지원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인의 날 시상식 수상자가 제조업종으로 국한되어 있어 앞으로 서비스업종도 기업인의 날 수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응하여 도내 무허가 축사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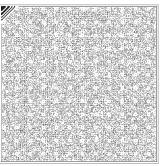
동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축사 피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양봉 관련 사업 지원 시 농가규모(별통수) 규정 마련, 장비 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등 5건의 시정·개선요구와 16건의 촉구·건의사항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실시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경제통상국에 대해 태양광 시설 설치 시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태양광 무해성 등 주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사회적 기업의 업종 선정에 있어 기존의 동일 업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틈새 업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정국에 대해서는 가뭄대책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저수지 규모의 적정화와 지하수 관정개발 등과 병행하는 중장기적 가뭄해소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안전충북’ 실현 위한 자연재난 예방대책 점검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영향 최소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CCTV 관리부서 일원화 △가금~북충주IC 국지도 미준공 장기화 마무리 △2018바이오코리아 도내 개최 △청소년교통안전 교육 도내 전 학교 확대 실시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방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직접 체험하고, 오송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시험가동 현장과 원형지개발사업 분양지를 점검한 후 지방도 512호선 구간인 산성~무성간 확

포장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현황과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1월 30일과 12월 4일 양일간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재난안전체험관 사업비 축소, 영동-단양 충북종단열차 효율성 및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추가 예산 확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연차별 계획 수립, 용곡~미원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신규노선 등의 주요 쟁점사항을 집중 질문하고 문제점 지적과 함께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6일 경북 포항시에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위원회 주관으로 재난안전실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도내 시·군 지시사항 전파 등의 조치 현황을 청취하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선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환경기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장
임순묵 의원



부위원장
이광진 의원



강현삼 의원



김봉희 의원



박병진 의원



장선배 의원



11월 13일 국내 유일의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 센터를 방문해 시험분석 평가 시스템 구축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 심의

필로티 구조 신축학교 내진성능 점검·보강 주문



위원장
정영수 의원



부위원장
이종욱 의원



김학철 의원



윤홍창 의원



이숙애 의원



임헌경 의원



11월 21일 충청북도교육청 화합관에서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영수)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언론사 지적내용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해 무고성 투서나 언론보도에 의존하여 왜곡된 시각, 편견에 의한 감사 자체 등 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 필로티 구조로 신축된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 점검 및 보강 등 62건을 지적하고 건의 및 주의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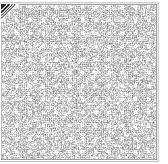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24일 실시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충북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정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과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또,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1일 실시한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20년(가칭)대소원2초등학교 설립계획안」과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가 부족하거나 과다 계상한 행복씨앗학교, 혁신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업 등 21개 사업에 27억 1236만 9000원을 삭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60회 정례회

충북도·도교육청 2017년 추경 및 2018년 예산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60회 정례회 기간 중 5차례 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27일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0.1%인 39억원이 증액된 3조923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인 46억 원이 증액된 4788억원으로, 심사결과 축산과 소관 우량송아지 생산시설 지원비 1억6000만 원을 삭감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심사한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인 305억원이 증액된 2조6247억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 심사한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1%인 2732억원이 증액된 2조5332억원으로, 이는 내국세 세수 증가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국고 확보에 따라 중

양정부이전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계수조정 결과 학교혁신지원비 9억6500만원, 전광판 및 홍보판 운영비 2억6606만원, 학생참여예산 1억5000만원 등 21건 27억1236만9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과 12일에는 「201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7.7%인 2681억원이 증액된 3조716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7%인 453억원이 증액된 4658억원이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4종으로 전년대비 8.2%인 683억원이 감액된 7681억원이다.

예결위원들의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는 장애인회관 건립부지매입비 5억원, 도유지매각 대체취득비 5억원, 복합예술의 다리 조성사업 9억원 등 총 22건 26억 7279만원이 삭감됐고 특별회계는 2018충북소방산업엑스포 개최경비 및 소방산업엑스포 해외바이어 초청여비 등 2건 3억1580만원이 삭감되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12월 1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제360회 정례회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정영수 의원)

- 충북지역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활성화 하고자 함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 이광희 의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을 돕고 경제발전에 기여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우양 의원)

-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증채무 채권자의 도지사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고의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약칭 사용 및 일부용어를 정비

충청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등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 연철흠 의원)

- 충청북도 도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지역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이 활발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대표발의 : 이의영 의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같은 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장선배 의원)

-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와 사업장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신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희무 의원)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폐지되고,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
- 「여성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

충청북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정영수 의원)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숙애 의원)

-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

충청북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 충청북도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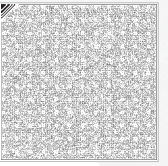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한범 의원)

-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견청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학부도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하고자 함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공기업 일반인 및 외부기관의 대학 시설물 사용 요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대학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조례를 신설하고자 함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등의 면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에 대해 공채매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지역개발기금 부채를 감축하고, 도민의 공채 매입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의결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관련 무형문화재 조항을 삭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정원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 산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4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심의·의결 보고자 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7.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 등에 대한 기준과 충청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도모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2017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020년 가칭 대소원2초등학교 설립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교육감)

- 도내 각종 개발지구 공동주택 입주학생 배치 등 학생·학부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의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새 정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 현장행정 중심의 인력보강과 도정현안 반영 등을 위해 기구 및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심의·의결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 충청북도지사)

- 근거 법령이 없고 불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간결화



청주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설립 지원 시급



박 우 양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 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청주국제공항은 해마다 5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내면서 만년 적자공항이라는 오명을 들어오다, 지난 2016년 첫 흑자를 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흑자로 돌아서는 데는 저비용 항공사의 취항 확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비용항공사 에어로 K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난 6월 26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지만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다는 이유로 심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 K가 설립되면 국제노선 확대, 중부권 주민들의 항공이용 편의 증진, 최소 600여개의 지역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공항활성화 및 항공관련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 K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가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어,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세명대학교, 도차원의 지원과 관심 절실하다



윤 홍 창 의원
(교육위원회)

제천지역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세명대학교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세명대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남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사실상의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천지역 경제의 상당부분을 지탱해 주던 세명대학교의 이전 문제는 시민들에게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국립대와 도립대를 제

외한 거의 모든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부실대학의 퇴출이라는 숙아내기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제1과제는 꾸준한 재학생의 확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명대학교와 충북도간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MOU를 빠른시간내에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재정지원 통해 세명대를 제2의 도립대학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명대 항공 관련 학과의 교육여건 개선과 폐 비행기 기증, 청주공항 내에 강의·실습공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도의원 제2선거구 존치방안 마련 돼야



황 규 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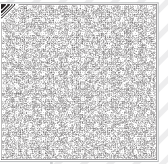
현재 농촌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농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서 인구만을 기준으로 옥천군 제2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천지역은 토지이용 규제가 심해 지역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군 전체 면적의 약 84%가 공적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및 지역개발사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역 내 인구감소는 물론 옥천 발전의 퇴보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도시로 이동하려는 청년들을 농촌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의 인구중심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외에 지역면적, 문화, 각종 공적규제 정도 등 종합적인 면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정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 선거구를 지킬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협조와 대승적 차원의 대안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해외교류 방법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며



연철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우리 충청북도는 9개 자매결연 도시와 10개의 우호교류 도시를 지정하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도가 외국의 이런 도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소한 도시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도지사께서 일본 야마나시현을 방문하여 2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에게 외국방문 성과를 설명하듯 도지사께서도 도의원들에게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의회도 자매결연·우호교류 활동에 대한 무관심한 점을 반성하고 교류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도의회는 교류도시의 의회나 기관을 방문하는 단순방문에 그치고 있으며, 집행부와 외교전략을 공유하지도 못한 채 제각각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충북도민들이 여행, 유학, 의료기관 방문 등을 계획할 때 서로 자매결연 도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 폐지방안 적극 마련할 것



김인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국립공원을 편리하고 용이하게 이용해야 함에도 문화재관람료가 걸림돌이 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충북도는 지난 2012년부터 속리산 법주사 문화재관람료를 폐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보은군 사회단체협의회가 법주사에 조속한 협조를 건의했고, 2016년 이시종 도지사님과 법주사 주지스님이 문화재관람료 실무추진단

구성 및 문화재관람료 현안해결 추진에 합의를 이룬 후, 충북도 간부, 보은 부군수, 법주사 재무국장 등 실무추진단이 문화재관람료 전면 폐지를 전제로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사찰방문이 아닌 탐방객들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축적된 산사(山寺)와 불교 이미지가 훼손되었지만 문화재관람료가 폐지되면 많은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찾아 힐링과 여가를 즐겨 사회적 복지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국립공원 중 일부 침체지역에 방문수요와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법주사 문화재관람료가 전면 폐지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대응 선제적으로 준비하자



임병운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최근 몇 년간 주기적으로 최악의 가뭄이 반복되고 있고, 이후 장마와 함께 찾아온 국지성 호우로 인해 충북도 전역은 지난 7월 16일 최악의 ‘물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충북도 내 곳곳에서 도로 및 주택이 침수되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시설하우스 등이 침수되었고, 충북도 일부 지역이 초토화 되어 사상초유의 큰 피해를 입었고 충북도민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

습니다.

이에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대응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세 가지 사항을 도지사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저수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보다 많은 다목적 저수지 시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적이고 안전 충북도 구현을 위한 실제적인 계획을 세워주시시오.

셋째, 기후변화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환경정책과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도민을 위한 도청이 되어야 한다



임 순 목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도는 1896년 충청북도라는 명칭을 최초로 갖게 되었고 현재의 도청은 1908년에 도청소재지가 충주에서 청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구가 늘고 행정수요 증가로 서관·동관·신관이 신축되었음에도 청 내 공간은 여전히 부족해 도의회에서 제7대~제9대에 거쳐 도청 신축이전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도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기관 청사 이전

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트렌드입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해 국가의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는 반면 도청 소재지인 청주권만 충북의 인구가 집중되는 현 상황은 도내 균형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생산적인 도정운영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가칭 ‘청사 이전 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이전지역 선정, 재원조달방법 등을 각계각층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사 이전에 대해 무계획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충북역사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율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윤 은 희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충북의 모유수유문화 확산과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요청 드립니다.

모유의 영양학적·면역학적 우수성은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모유수유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 중 양육 시 모유수유 및 착유 공간 부족,

모유수유 지속이 어려운 직장분위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의 완전모유수유율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모의 99.8%가 병원에서 분만하고 있어,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병원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둘째, 워킹맘을 위한 모유수유 및 착유실의 확대 설치와 직장 내 모유수유 문화형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충북도는 현재 기관 모유수유실 설치·관리는 청년지원과에서, 모유수유확산 지원계획·교육·행사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바,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혁신도시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하라



정 영 수 의원
(교육위원회)

진천~음성 혁신도시 택시 통합사업구역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북혁신도시 성공의 키는 정주여건 조성이고, 정주여건 조성의 핵심과제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이며,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은 버스와 택시입니다.

이웃 충남, 경기, 서울도 신도시 등에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해 주민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타 시·도의 적극적인 주민편의 위주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사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통합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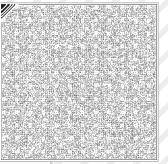
지정’은 진천군과 음성군의 합의가 없이는 불가하며, 1차적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통합구역 지정을 희망한다’라는 원론적·방관자적인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도가 다음과 같이 문제해결에 나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즉시 ‘(가칭)충북혁신도시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

둘째, 택시사업구역 조정위원회에 충북혁신도시 지역주민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택시사업구역을 지정·시행하라!

셋째, 행정 편의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충북혁신도시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가칭)충북혁신도시 통합행정기구 추진 TF’를 설치하라!



특혜·비밀 좋아하는 김병우 교육감 공짜 방세 즉각 납부하라



이 종 욱 의원
(교육위원회)

얼마 전 김병우 교육감은 중·고 교감 타운홀 미팅에서 수련원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교육감은 “휴가 기간에도 통신선상에 있어야 하고, 비상대기 공간이 있어야 한다”, “휴가 때도 업무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며 “그래서 숙박료를 안 냈다”, “그걸 특혜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 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께 묻습니다.

도대체 왜 휴가와 업무를 동시에 즐기는 공간이 비밀공간이어야 하고, 다른 객실보다 훨씬 더 넓어야 하며, 시설·전망이 좋아야 하는지, 또 왜 무료로 사용해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용해야 하며, 특혜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하는지...

지난해 9월 강원도 교육감은 수련원을 무료로 사용하다 즉각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김병우 교육감은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사모님이 무료로 사용한 객실을 업무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오늘이라도 모든 휴양시설의 객실을 돌려주시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교육가족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과도한 복지정책 지양돼야



김 학 철 의원
(교육위원회)

정부와 우리 도의 복지분야 예산의 비중과 증액추세에 대해 걱정스러운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정부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3분의 1이 넘었고, 충북도 전체 세출예산 대비 31%에 달합니다.

복지예산은 결국 수혜를 받는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역량과 국가재정상태만 본다면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닐 수도 있지만 25년, 50년 후

에 미래세대가 감내해 낼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세대가 어떠한 조세부담과 복지의 수준을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권은 복지를 표방한 선심성 공약의 유혹에 빠져들고, 국회와 지방의회는 그 복지에 산을 쉽게 쳐낼 수도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저선 안 될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더욱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복지정책이라는 현대판 세이렌(seiren)의 치명적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현안 사항들을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자치연수원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해 시상·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진천군에 위치한 충청북도 농산 사업소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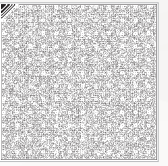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 소방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체험한 후 시설을 점검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충북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주변 축사 건립과 관련한 현황을 듣고 학부모와 주변마을 주민들로부터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충청북도의회 문장대 온천개발저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지난해 12월 26일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 사무처 직원들이 제천 시내 체육관에 마련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합동분양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의 넋을 애도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도청 본관 앞에서 개최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지역축하행사'에 참석해 성화를 점화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해 11월 16일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충청북도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제26회 충청북도 우수농업경영인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격려했다.



지난해 12월 20일 김양희 의장과 도의원들이 함께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은 도서 1,200여권을 아동·청소년 공동생활인 그룹인 '참좋은집'에 기증했다.



장 선 배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마무리 앞둔 10대 의회의 과제



2018년 무술년 새해다. 올 상반기는 충북도의회가 제10대 의회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때다.

돌이켜 보면, 제10대 의회는 칭찬보다는 질책과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럼에도 큰 흐름에서 보면 지난 3년 반은 도의회가 지방자치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넓혀 온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충북도의회는 그동안의 술한 영욕과 부침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를 잘 마감하고 제11대 의회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새해 충북도의회의 역점 과제는 무엇보다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이다.

이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치권과 정부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전국 시·도의회 활동에 보조를 맞춰 왔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토대위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방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추동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방분권 강화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지방분권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하는 개헌은 이미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정파와 지역을 뛰어넘는 시대정신이다.

충북도의회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도민의 힘을 모으고 도민의 뜻을 정치권과 정부에 전달하는 등 개헌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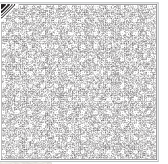
충북도의회의 또 다른 과제는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껏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무조건적인 개발을 ‘절대선’인 것처럼 여겨왔다. 그런데 이런 개발투자가 주민 행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 부정적인 영향은 얼마나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개발도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묻지마식 개발’을 위해 우리가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안전도 개발 우선에 밀려 저만큼 뒤쳐져 있다. 많은 인명을 앗아간 제천 화재의 원인만 꼽아 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개발에 따른 환경악화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지만, 중요도는 높지 않았다.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개발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많은 지방의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충북도의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또 이에 맞춰 충북도의 행정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는 비단 10대 의회 뿐 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해야 할 일이다.



정 영 수 의원
(교육위원회)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 도의원을 다짐하며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느끼는 감정이지만 올 2017년도 아쉬운 마음을 간직 한 채 역사의 뒤편길로 보내며,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맞이했다. 올 해는 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동시에 지방의회를 새롭게 열어야 할 6.13 지방 선거까지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마음가짐이 남다르게 다가온다.

10대 충북도의회원으로 당선 되었던 날, 도의회에 첫 출근하던 날, 10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그날들... 도의원으로 생활했던 지난 3년 반 동안의 일들이 어느덧 나의 소중한 옛 추억이 된 듯 파노라마처럼 떠오른다. 쉽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게 된다.

도의회원으로 당선되던 날 “진천을 교육특구 활성화를 통하여 전국최고의 명품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재래시장 활성화, 우수기업 유치 등을 통하여 지역 상권 부흥과 경제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중심에서 생겨진천과 충북 발전을 견인하는 진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 진천군민을 포함하여 충북도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작은 소리도 가슴에 새기는 따뜻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히며 다짐했었다.

진천군민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보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할 설렘과 기쁨,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도의회에 첫 출근하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바르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원적 힘이 되고 있다.

10대 의회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열정만으로 의정활동이 다되지 않는다는 것, 동료의원들은 물론 집행청,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치의 노력이 사업추진이나 문제해결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몸으로 부딪치며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10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과 기능 권리와 의무에 대해 숙지하며 충북인재육성을 통한 충북교육발전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의정활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간다.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해 왔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족함과 아쉬움이 남는다.

남은 10대의회 동안 미해결된 교육현안문제 해결과 진천군민과의 약속을 지켜 도의원으로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리라 다짐한다.

2018년은 개 중에서도 ‘황금 개’띠의 해라고 하는 무술년(戊戌年)이다. 수호와 용맹, 충직과 지혜의 상징인 개의 상징적 의미와 교훈을 음미해본다. 말과 행동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정성을 갖고 정성을 다해 끝까지 노력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다.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청원안내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1~5155

민원안내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서는 청원서 외에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제출방법

- 우 편 :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진정/민원」에 글쓰기
- 팩 스 : 043)220-5159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council.chungbuk.kr>

- 충청북도의회 인터넷방송 : <http://assembtv.cb21.net/>
- 트 위 터 : https://twitter.com/chungbuk_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